

조달청, '26년도 정부물품관리 우수기관·유공자 포상

-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통해 대통령 표창 등 총 25점 포상
- 불용품의 활용도 증진, 재정절감, 관리방법 제작,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물품관리에 기여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30일 대전컨벤션센터(DCC)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제6회 '조달의 날' 기념행사에서 '26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'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.

이번 포상에서는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성과를 거둔 기관 및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(3점), 국무총리 표창(2점), 재정경제부장관 표창(10점), 조달청장 표창(10점) 등 총 25점이 수여됐다.

대통령 표창은 불용품의 재사용을 적극 검토하고, 매각과 무상양여 등 다양한 처분 방식으로 물품의 활용도를 높인 **경기도북부경찰청**, 불용품의 매각 및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관리전환을 통해 재정절감에 기여한 **서귀포 해양경찰서 진형욱 경장**, 사용·고장 빈도가 높거나 관리·운용 정보가 부족한 물품군을 선정하여 관리 방법을 제작·전파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**부산해양경찰서 손재훈 경사**에게 돌아갔다.

국무총리 표창은 기관과 물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 **중앙119구조본부**, 대학의 불용 정보화 물품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·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**국립부경대학교 정지윤 주무관**이 각각 받았다.

이 밖에도 **한국교원대학교** 등 10개 기관·유공공무원이 **재정경제부장관 표창**을, **울진국유림관리소** 등 10개 기관·유공자가 **조달청장 표창**을 수상했다.

백승보 청장은 “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물품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·평가하여 물품관리 수준을 높이고, 국가물품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며

“이번 평가와 포상이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물품의 취득과 처분,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	송명근 (042-724-7164)
		담당자	서기관	배철규 (042-724-7134)